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 전남 수소산업 육성 선결과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 거대한 규모의 전력망)사업’ 등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LNG 공급망을 통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인 LNG를 중국, 일본 등과 거래하는 거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범정부 차원에서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올 하반기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기업 밀집산업단지 등에 대한 전국 최초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이 유력한 상태

LNG 공급망 통해 수소 추출 중국·일본 등 거래 거점 마련 동북아 에너지 수요·공급 조절 슈퍼그리드 구축사업도 탄력

다. 전남에 국내 2위의 부생수소 생산능력(33.8%)이 있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수 묘도에 LNG 터미널이 조성되면 LNG 공급망에서 추출되는 수소로 인해 수소 생산

량에서 큰 격차로 울산 등 타 지역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3대 수소생산거점은 여수, 울산, 대산 등으로, 울산이 LNG 터미널 조성에 뒤늦게 뛰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인 (주)한양 등은 2026년까지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LNG탱크 20만kl(킬로리터) 13기, 항만 등을 조성하고, LNG 탱크 임대, 중국·일본과의 LNG 거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 묘도에 LNG 터미널을 조성하고, 중국, 일본과 LNG 무역에 나설 경우 빛가람혁신도시 내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

력, 발전회사 등 에너지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도 한층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남도는 수소, LNG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수소 및 공기 공급 장치, 수소저장장치 등과 관련된 기업을 집중하고,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광주·전남권 연구기관, 에너지 공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린 수소 연구·개발 및 생산·실증 거점 육성, 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 구축, 수소차·충전소 보급 및 수소시범도시(여수)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권역별로는 전남 동부권에 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를, 중부권에 그린수소 에너지 연구개발 거점, 서부권에 그린수소 대규모 생산 및 실증단지 등을 뒤 전남 전체에 수소산업의 허브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소, LNG 등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소

바·유동·국제거래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남도가 동북아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묘도는 중국과 일본 수요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로 가장 적합하다”면서 “여수 국가산단에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여수 오일 허브와 연계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구축, 거대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본격화

농림부 기본계획·부지매입 박차

고흥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고흥군 도덕면 가야·신양리 일대 29.5ha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정지로 선정하고 이후 부지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을 집약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정

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업업 단지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056억원을 투입, 청년 농부들을 위한 실습농장 등을 갖춘 청년보육단지(4.5ha)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만감류), 지역특화작물(멜론), 수출품목(스페셜T토마토, 메리퀸 딸기) 등을 생산하는 생산시설(13.5ha), 실증온실과 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실증단지(4.5ha)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혁신 밸리 조성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병행하는 한편, 기본계

획 수립을 위한 선도 농업 현장을 방문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또 기존 사업추진단을 고흥군·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도는 이들 사업추진단과 청년창업보육·기술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기능이 집약된 기본계획을 세워 오는 8월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 도착 후 곧바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동고동 저택을 찾아 고인의 삼남 김홍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송환법 반대 집회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어머니 6천여명 모여 시위

5·18대포 노래 한국어로 불러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어머니들의 집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15일 홍콩 명보, 유튜버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홍콩 도심 차타가든 공원에서 는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고,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 어머니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 어머니는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라며 “영화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 등을 본 홍콩인들은 이 노래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00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광



한국에 거주하는 홍콩 시민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압송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며 “‘우산 행진곡’으로 노래를 바꿔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기리며 개사했다는 얘기가다.

그는 노래의 전반부를 광둥어, 후반부는 한국어로 불렀으며,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플래시를 깜빡거리며 박수를 보냈다. 특히 후반부의 ‘앞서서 나가니 산이 자여 다르라’ 부분에서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연합뉴스

“나라의 큰 어른 잃었다”…문 대통령, 故이희호 여사 유가족 위로

북유럽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검찰총장 임명 등 국정현안 점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낮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동고동으로 향해 고(故)이희호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길 민화협(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 고인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그 결에는 늘 여사님이 계셨다”면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심

이 되어주셨다”는 말로 고인을 추모했다. 또 여성운동가로서 이 여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여사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을 하며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오슬로 구상”을 밝히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평화는 핵이 아닌 대화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활용해 북미 핵 협상의 교착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을 다시 조율하며 정치권과의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청와대 비서관 개편도 고심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2017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초 수상!

Costa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승무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시아

매일매일 새로운 4개국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한/중/일/러 4개국의 아침을 깨우다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인천/숙초/부산 왕복수송

10/8 인천항 출항

인천항 · 상해 · 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톡 · 속초항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내 측 1,980,000원 ~ 발코니 2,680,000원 ~ 오선부 2,280,000원 ~ 스위트 3,480,000원 ~

10/15 속초항 출항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카미나토 · 부산항

한/러/일 특별 전세선 6일

내 측 1,780,000원 ~ 발코니 2,480,000원 ~ 오선부 2,080,000원 ~ 스위트 3,280,000원 ~

조기예약 이벤트

30만원 할인 + 선실 우선배정

[7월 19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 예약

8명 이상 30만원, 14명 이상 50만원, 20명 이상 100만원 할인

3/4인실 할인

성인 80만원 / 소아 무료!

3/4인실 이용시 3/4인실 고액 상품가

포함내역: 크루즈 객실 및 다양한 수상 프로그램, 선내 뷔페 및 레스토랑 정찬식, 선내 이벤트 및 부대시설 이용, 다양한 쇼프로그램(일부 유료시설 및 소 제외), 미팅/생동 포항, 크루즈 전문인솔자 동행, 선박ITAX,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선내 승조원경비(선인 \$72.5~\$101.5 / 소아 \$37~\$52), 기항지 선택관광(선택관광에 따라 상이) / 홈페이지 참조, 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10

2018 인기크루즈 BEST 3

선박소 20만인 할인 한/일 크루즈 5/6일

1,090,000원부터 +\$677.5 선택관광 있음

7/3,8,12,26~ 매주 월·수·금요일 출발

새롭게 단장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탑승 · 부산 출/도착

베스트셀러 알래스카 정통 빙하크루즈 10일

3,700,800원부터 +\$6201.5 선택관광 있음

6/7, 14 이후 매일출항. 매주 금요일 출발

루비 프린세스호 · 프리미엄 크루즈 승선 및 알래스카산 선상식

조기예약 최대 3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0,000원부터 +\$70/180유로 선택관광 있음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6/21~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6/28~ 매주 금 출발

유럽 NO.1 코스타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입급호텔 숙박

가경포해안 크루즈 선실로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선택관광(선택)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객의 입국은 고개별 전용터미널로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일본여행업 제47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0 롯데관광(제주) ●일본여행업 연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만원 가입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6882 ●여행보험비: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21실 사원인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서 따라 차가 있음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항권, 숙박권 등은 연세관광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